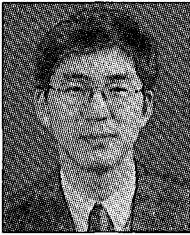


근관치료 치아의 수복 및 실패

김욱동 에이플러스 치과병원



연자약력

서울치대 졸
보스턴 치대 보철과 수료
에이플러스 치과병원

근관치료가 된 치아를 포스트와 코아를 사용하여 수복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과 그 주의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결과들을 살펴본다.

포스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때 치근 방향으로 3~5mm의 근관 충전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apical seal이 깨지기가 쉬우며 너무 짧은 포스트의 경우에는 충분한 유지력을 가질 수 없다. 포스트 주위로는 최소 1mm의 건전한 치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너무 굵은 포스트의 경우에는 치근의 천공이나 파절을 야기시킬 수가 있으며 특히 하악 구치의 근심치아에 포스트를 해야하는 경우 원심면의 치근 천공을 야기시킬 수 있다. 포스트의 형태에 있어서 나사형태의 tapered threaded post는 유지력은 좋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치근파절의 가능성이 다른 형태의 것보다 높다.

코아형성시에 사용하는 재료중에 glass ionomer계통의 재료들은 충분한 강도를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Furcation involvement가 된 치아를 root resection을 한 후 근관치료와 포스트와 코어를 한 후 고정성 국소소치의 지대치로 사용한 경우의 10년간 평균 실패율은 30%가 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주의하여 접근하여야 한다.